

고등학생들의 플로리싱과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

김 미 정¹⁾

김 정 민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플로리싱과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재학 중인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5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고등학생의 플로리싱,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은 SPSS 26.0, AMOS 26.0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정방법을 통해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SRMR, RMSEA 및 90% 신뢰구간, CFI, TLI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과 플로리싱이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가족응집성은 고등학생의 플로리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은 고등학생의 플로리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응집성, 자존감안정성은 또래관계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응집성은 자존감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이 고등학생의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의미있는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플로리싱, 가족응집성, 자존감안정성, 또래관계 기술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인간발달학회·가정과삶의질학회 온라인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jungminkim@cu.ac.kr)

I. 서 론

최근 웰빙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단순한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경제적 풍요나 교육수준인 ‘실물(real things)’에서 벗어나 ‘구조물(construct)’인 다차원적인 요소를 지닌 ‘플로리싱(florishing)’이 주목받고 있다. 플로리싱은 지속가능한 높은 수준의 웰빙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의미로 웰빙을 정의하지 않고 몇 가지 요소가 합쳐져 서로에게 기여하고 그 자체를 추구하지만 웰빙을 정의하지 않는다(Diener et al., 2010). 인간이 플로리싱을 경험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좋은 관계, 그리고 성취를 통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eligman, 2011). 즉 플로리싱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최적화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한다. 플로리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룬 인간은 단순히 기분 좋음을 나타내는 것보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잘 살아가는 특징을 지니며(Michalec, Keyes, & Nalkur, 2009) 그 삶에서 좋은 생각, 행동, 감정, 그리고 잠재능력까지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번영을 이룬다(Shannon & Kathryn, 2018).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 인성적 요소 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플로리싱이 높은 사람은 최적의 기능을 발휘시켜 시대적 문제의식과 요구에 맞추어 성장할 수 있다(Seligman, 2011).

플로리싱은 인본주의 심리학과 관련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긍정심리학자들(Csikszentmihalyi, 1990; Diener et al., 2010; Seligman, 2011)은 플로리싱이 인본주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유능성, 관계성, 자기 수용 등과 같은 심리적 욕구를 포함하며 심리학적 자원의 기초인 몰입, 관심, 참여 등이 인간의 웰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플로리싱은 인간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타인들과 자율적이면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상호간의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Brown, Nesse, Vinokur, & Smith, 2003). 더불어 플로리싱은 무언가를 하면서 몰입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의 행동과 노력을 통해 목표 성취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데 기여한다(김미정, 문수백, 2020). 일상의 경험을 통해 플로리싱 수준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중요한 활동을 유능하게 수행하면서 타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보람 있는 관계를 이루고 목적이 있는 삶을 지향하여 서로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한다(Diener et al., 2010).

플로리싱은 한 인간의 전인적 인성발달과 바람직한 삶의 추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추병완, 2019), 이는 청소년 시기의 인성발달과 도덕적 가치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경험을 통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전제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행복한 경험을 통해 인지적 과정의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Erez & Izen, 2002),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포괄적, 현실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다(Seligman, 2011). 더불어 행복경험은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나 미래의 불확실성, 학업의 어려움 등에서 일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처하면서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김미정, 문수백, 2020).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서 플로리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내적성찰 과정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좋은 습관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플로리싱은 현재와 미래에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은 부정적이다(염유식, 김경미, 성기호, 윤성탁, 2019).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웰빙지수’는 OECD 22개국 중 2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염유식 등, 2019), 아동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으며 삶의 질 또한 낮게 보고되었다(오혜섭, 최인재, 염유식, 김언주, 2018).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입시위주의 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낮은 행복감이나 부적응을 들 수 있다(고관우, 남진열, 2011).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와 진로, 적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끼고(김지영, 2016),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삶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이러한 전반적 분위기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19)에서도 나타나는데,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인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우울감 경험도 16세부터 19세까지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입시와 관련하여 가족,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기대나 성취압력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학업과 입시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행복은 심리·정서적 상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상태를 완화하고 삶의 동기와 기대를 높여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인기로의 전환에 있어 고등학생들의 행복은 적응뿐만 아니라 전 생애동안에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Roberts, Brown, Johnson, & Reinke, 2005).

청소년기는 역동적 전환기로 신체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역할, 가치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자기상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신체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재능과 강점을 발현하여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이룬다(김미정, 문수백, 2020). 행복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의식, 친사회적 특징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생의 전반에 걸쳐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파급을 지니고 있다(신지은, 최예원, 서은국, 구재선, 2013; Furlong, Gilman, & Huebner, 2014). 즉 청소년의 행복경험은 개인의 지속적인 발달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삶의 목표 설정과 함께 인격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복경험은 단순한 ‘기분 좋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으로 삶을 풍요롭게 변영할 수 있기에 성장발달의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는 자기를 알아가고 형성해가는 시기인 동시에 개인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개인의 행복정도를 결정하는 시기(Bellis, Hughes, Jones, Perkins, & Mchale, 2013)로써 플로리싱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될 수 있다.

최근 정책과 학계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지표에 플로리싱을 포함시키면서 생태학적 관점과 발달적 접근, 개인의 웰빙 관점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소년들은 플로리싱을 통해 학업 성취와 성품 함양을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높이고 비인지적인(non-cognitive) 특징인 그릿(grit), 탄력성, 그리고 성장마인드셋과 같은 생활기술을 체화할 수 있으며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화와 풍요를 이루면서 웰빙을 다시금 향유할 수 있다(추병완, 2019). 이와 같이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고등학생들에게 플로리싱의 경험은 적응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Caprara, Steca, Gerbino, Paciello, & Vecchio, 2006). 따라서 많은 변화와 욕구를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이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발달

적 영역과 그들의 삶의 환경적 요소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주요한 환경인 가족은 플로리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김미정, 문수백, 2020; Eagle, 2008; Seligman, 2011). 가족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애정적 관계에서 서로 긴밀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Olson, 1991). 청소년기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행복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가족 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요소로 화목한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간의 사랑이나 배려, 이해, 믿음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정태연, 2009; 박영신, 김의철, 200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이 건강하고 정서적 유대감 수준이 잘 유지될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정, 하미경, 2020),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김민지, 고재홍, 2016), 청소년기의 가족이 건강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이정화, 이정자, 2015). 아동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과 행복감 간의 연구에서는 응집성이 높은 경우 아동이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박현철, 김성봉, 홍달아기, 2011). 또한 청소년

가족관계의 질적 지표인 가족 간의 안정적인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높았으며(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부모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송희원, 최성열, 2012),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는 청소년의 정신적 웰빙수준인 플로리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순, 김은향, 2018).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나 결속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Olson, 1991)은 발달적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가족응집성을 선정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또래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상호신뢰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숙한 성장을 한다. 또한 발달적 욕구로 또래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상호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단순히 흥미나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애착관계를 나타내고 애정과 존중감을 보이기도 한다(Hartup, 1993). 이 시기의 또래관계 특징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그들과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유의미한

또래와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행동과 지식을 배우고 효율적인 상호작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Greener, 2002). 상황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또래관계기술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이 친구집단과 어울림으로 관계에 대한 충족감을 느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정성미, 이지연, 2014)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시사되는 바이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플로리싱 간의 직접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플로리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김미정, 문수백, 2020), 청소년기에 지각한 긍정적 또래관계가 안녕감 수준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모, 김근희, 2013). 윤정미와 김진영의 연구(2017)에서도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영애와 이영자의 연구(2015)에서도 청소년기 또래관계가 상호 인정을 받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삶에 대한 만족과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또래관계기술을 선정하였다.

청소년기 고등학생은 형식적 조작으로 타인의 내면을 고려하고 자기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자의식을 형성한다. 고등학생들은 인지적 발달로 자기에 대한 불일치하는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하나의 자기로 설명가능하다(Harter & Monsour, 1992). 이러한 통합적 특성

은 한 개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기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야 하는데(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개념의 하나인 자존감과 관련하여 자기상이나 가치감 등 내면적 성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박승민, 강민철, 김은하, 2015). 이는 고등학생의 안정적인 자존감이나 가치감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방에 도움이 되고(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자기조절 방식에 있어 자기 결정적이며 자신이 추구한 목표에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ernis, Paradise, Whitaker, Wheatman, & Goldman, 2000). 대부분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나타내고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 들어오는 부정적 정보를 편향하는 경향이 낮으며 자기를 위협하는 느낌 정도가 낮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이는 외부 상황이나 정보에 의해 평가되는 자존감의 순간적 변동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특성을 자존감안정성이라고 한다. 즉 자존감안정성은 자존감의 순간적인 변동 정도로 주위의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된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자존감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자기가치에 대해 자기 내부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한 자기가치감을 가지기에 자존감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정한 자존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내·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 취약함을 가지기에 다양한 심리적 적응 문제를 초래한다(Kernis et al.,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자존감안정성은 다원적 차원의 자기개

념을 반영하기보다는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는 구조 변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더 관련이 있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자존감안정성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입시, 발달적 과업 등과 같이 변화와 혼란, 정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스스로 극복하여 건강한 발달적 과업을 이루게 도울 수 있다(Kernis, 2003).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와 진로, 학업에서 외부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불안정할수록 부정적 경험의 변화에서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취약한 자기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존감안정성은 연속되는 시험과 평가적 결과를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Kernis, 200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높은 자존감안정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현, 2019). Altmann과 Roth의 연구(2018)에도 자존감안정성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ernis와 Paradise(2002)도 자존감안정성과 심리적 웰빙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존감안정성과 웰빙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는 자존감안정성이 하나의 독립된 변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나(Greenier et al., 1995), 대부분의 연구가 자기에, 우울, 공격성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박미향, 김완일, 2014; 안연옥 등, 201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에 자존감안정성을 개인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기술은 개인이 처한 환

경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양윤란, 오경자, 2005), 이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나 친밀감을 밑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의 근간을 습득하여 이를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술로 펼칠 수 있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청소년에게 있어 정신적 안식처이고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체계(박영신, 김의철, 2004; Seligman & Darling, 2007)로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획득한다. 고등학생들은 가정 내에서 획득한 사회적 기술을 학교라는 집단에서 또래에게 선보이면서 입시와 학업에서 오는 동질감을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있어 협동적인 기술을 통해 인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장용희, 이재신, 2017),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할수록 친구관계 질에서 긍정적 기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소희, 오윤자, 2006). 또한 가족구성원이 서로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pdegraff, McHale, Crouter, & Kupanoff,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들 간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또래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에 가족응집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자존감안정성은 개인의 내적 외적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장재원, 신희천, 2011). 안정적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평가적 정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아 변화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하지 않고 안정성을 띤다(Kernis et al., 2000). 이러한 자존감의 안정성은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가족 안에서 느낀 정서적 지지와 인정, 안정감이 보호기제가 되어 자존감안정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자기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자존감안정성이 직접 연구된 바는 드물다. 그러나 자존감안정성은 자기개념의 구조적이고 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느끼는 방식을 통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 경험의 핵심요소로 중요한 심리적 구조(Kernis, 2003)이기에 중요성이 시사되는 바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개념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과 애정이 강할수록 자기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송영명, 이현철, 2011),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기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희영, 양미경, 곽수란, 2015). 이에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이 자존감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이 자존감안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수행능력이나 존재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면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내부나 외부적으로 오는 평가에 대해 변화하지 않고 자기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존감이 안정적인 청소년들은 과장되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기가치감이 크게 도전받지 않는다(Kernis, 2003). 이러한 특성은 타인의 승인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고현석 등, 2012),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존감안정성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안정적 인식을 가지고 또래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자존감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부당하게 지각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한다(Zeigler-Hill et al., 2015). 선행연구(김명수, 조옥귀, 2010; 박미향, 김완일, 2014)에서는 청소년의 자존감안정성과 학교적응의 교우관계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으며(김명수, 조옥귀, 2010; 박미향, 김완일, 2014), 청소년의 자존감안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tmann & Roth, 2018). 이에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존중감이 안정적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존감안정성이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에 본 연구에서 자존감안정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로리싱은 높은 수준의 웰빙으로 지속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웰빙은 현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삶을 기대하도록 삶에서의 의미와 목적을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플로리싱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좋은 감정과 행동을 증진시키고 행복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함께 성장하고 회복력을 경험하도록 돕는다(Fredrickson, 2015). 이는 단순히 성취이나 기분을 상승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김미정, 문수백, 2020). 고등학교 시기는 학업과 발달적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시기이기에 좌절이나 무능함을 느끼기 보다는 적응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경험해야 한다(Scott, 2007).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플로리싱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플로리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을 탐색하여, 가족응집성과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이 자존감안정성과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플로리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관점에서 플로리싱 관련 변인들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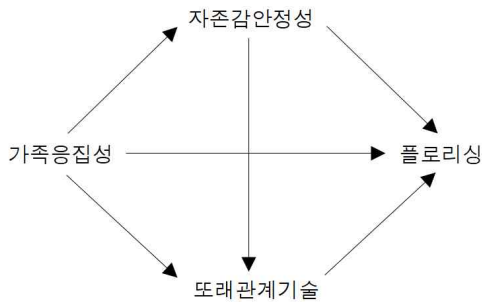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연구문제 1.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과 플로리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은 플로리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가?

2-1. 가족응집성, 자존감안정성은 또래관계기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2-2. 가족응집성은 자존감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2-3. 가족응집성은 자존감안정성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플로리싱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남, 여 고등학생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564명으로 1학년 217명(38.5%), 2학년 236명(41.8%), 3학년 111명(19.7%)이며 남학생은 298명(52.8%), 여학생 268명(47.2%)이다.

본 연구의 구조회귀모델 적합도 및 모수치 추정에 있어 모수치 대 피험자 수의 비율 기준(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56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플로리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플로리싱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2010)이 개발한 플로리싱 척도(Flourishing Scale)를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용으로 변안·수정하여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의 문항으로 삶의 의미, 목적, 자기수용, 사회적 기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척도이며, 문항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ling method)을 통해 척도의 문항들을 두 개의 꾸러미로 묶어 새로운 지표변수(플로리싱1, 플로리싱2)를 구성하여 부합도를 확보하였다(문수백, 2009). 플로리싱 척도의 문항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준다.’, ‘나는 나에게 있어 어떤 중요한 활동들을 유능하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기보고용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플로리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인 플로리싱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 방법

(Raykov, 2001)으로 추정된 결과 .90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응집성 척도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1991)이 개발한 FACE III(Three-dimensional, 3-D)를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인 고등학생에게 맞게 변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척도로 10개 문항을 3개의 꾸러미 변수(응집성 1, 응집성 2, 응집성 3)로 분류하여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족 응집성의 하위문항은 ‘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매우 친밀감을 느낀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의논한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자기보고용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인 가족응집성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 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된 결과 .88로 확인되었다.

또래관계기술 척도

고등학생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연구대상인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2개의 하위요인은 주도성(9문항), 협

동·공감(10문항)으로 ‘나는 친구에게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하여 의논한다.’, ‘나는 친구가 나를 도와주면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기보고용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Cronbach’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인 또래관계기술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 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된 결과 .64로 확인되었다.

자존감안정성 척도

자존감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재원, 신희천(2011)이 개발한 자존감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인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경우 단일척도로 구성되어 문항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통해 3개의 꾸러미(자안 1, 자안 2, 자안 3)로 분류하여 자존감안정성의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나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기보고용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안정성이 높아, 외부의 변화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을 의미한다. 또한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인 자존감안정성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 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한 결과 .87로 확인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플로리싱 척도와 가족응집성 척도는 연구자가 한국어로 변안한 뒤 1차 검수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한 다음 아동학 전공 박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또래관계기술 척도와 자존감안정성 척도는 1차 검수 후 아동학 전공 박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고등학생 연령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와 구성개념 신뢰도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남·녀 564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플로리싱의 원인 변인으로 설정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4개로 이루어진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1개로 이루어진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을 통계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다변인 정규분포

성 여부를 검정하였으며, AMOS 26.0을 이용하여 측정모델의 부합도 평가 및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인한 후 구조회귀모델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부합도를 평가하고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부합도는 TLI, CFI, SRMR 그리고 RMSEA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모수치는 통계적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또한 구조상 발생하는 간접효과 검정은 Phantom 변인으로 AMOS 26.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유의수준 .05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의 검증결과: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과 각각의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결과: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구조회귀모델의 2단계 분석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통계적 모델을 측정모델로 변환한 다음 측정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표 및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		응집성1	응집성2	응집성3	주도성	협동 공감	자안1	자안2	자안3	플로 리싱1	플로 리싱2
가족 응집성	적응성1	1.00									
	적응성2	.70*	1.00								
	적응성3	.73*	.66*	1.00							
또래 관계기술	주도성	.20*	.22*	.25*	1.00						
	협동공감	.44*	.38*	.40*	.35*	1.00					
자존감 안정성	자안1	.15*	.13*	.16*	.16*	.19*	1.00				
	자안2	.14*	.14*	.20*	.15*	.18*	.72*	1.00			
	자안3	.19*	.16*	.21*	.17*	.21*	.71*	.74*	1.00		
플로 리싱	플로리싱1	.26*	.27*	.31*	.31*	.36*	.26*	.37*	.45*	1.00	
	플로리싱2	.34*	.34*	.39*	.39*	.42*	.25*	.32*	.40*	.73*	1.00
사 례 수		564	564	564	564	564	564	564	564	564	564
평 균		10.87	11.54	15.06	32.38	42.56	9.02	8.55	12.28	15.50	15.62
표준편차		2.35	2.38	2.83	6.25	4.95	2.66	2.70	3.16	2.76	2.62
왜 도		-.33	-.40	-.10	.14	-.59	.24	.33	.14	-.10	-.27
침 도		.11	-.27	-.37	-.24	.21	-.36	-.39	-.24	-.37	.13

* $p < .05$.

본 연구모델의 측정모델 모델부합도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델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RMSEA(.05~.08)를 포함한 TLI(.96), CFI(.98), SRMR(.04) 등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RMSEA(.05~.08)를 포함한 TLI(.96), CFI(.98), SRMR(.04) 등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표 2.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측정모델	26	29	99.80	3.44	.96	.98	.04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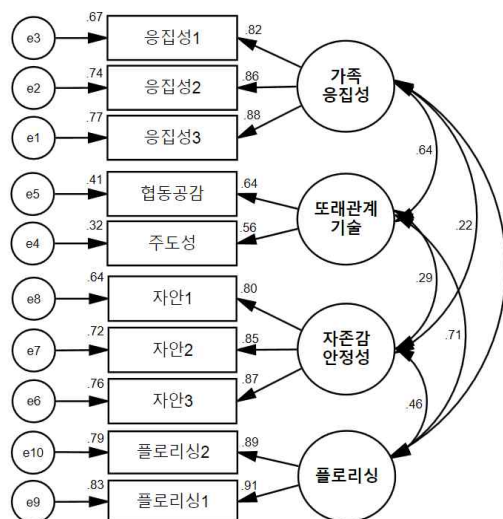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2와 같으며, 측정모델하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85 이하(.23~.71)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모델하의 구조변인들이 변별적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의 평가 기준(문수백, 2009; Kline, 2011)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잠재변인들의 모든 지표의 평균 요인부하량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모델하의 각 잠재변인에 지표변인들이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모델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설정된 통계적 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6.0의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RMSEA(.05~.08)를 포함한 TLI(.96), CFI(.98), SRMR(.04) 등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그림 3과 같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회귀모델의 변인 간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첫째, 가족응집성($B = -.03$, $p = .70$)은 플로리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문제관계기술($B = .47$, $p = .001$), 자존감안정성($B = .25$, $p = .001$)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응집성($B = .86$, $p = .001$)과 자존감안정성($B = .20$, $p = .007$)이 또래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응집성($B = .24$, $p = .001$)이 자존감안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정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초기 연구모델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가족응집성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표 3. 연구모델에서 변인들 간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연구모델	26	29	99.80	3.44	.95	.96	.04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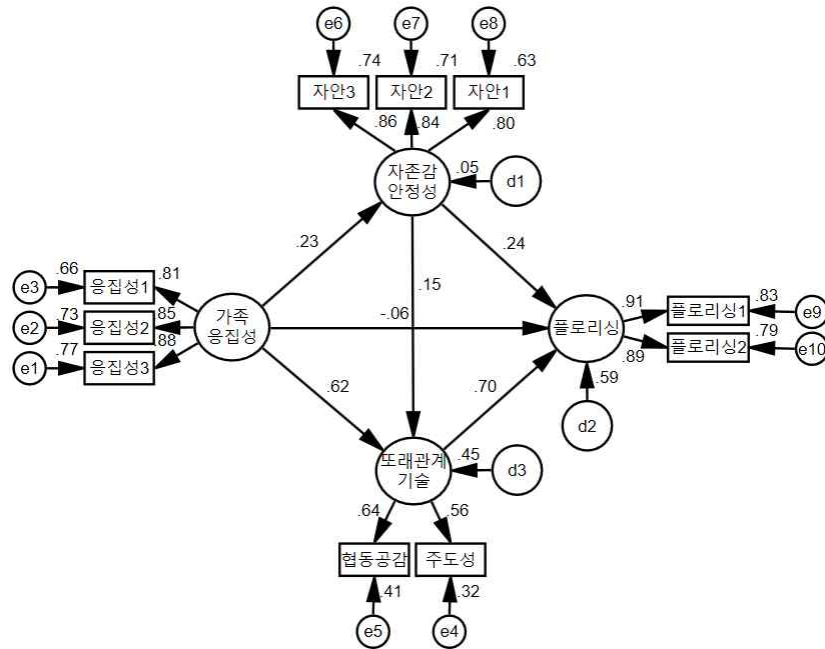


그림 3. 초기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표 4.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화 계수(B)	S.E	C.R	P	표준화 계수(β)
가족응집성	→	플로리싱	-.03	.09	-.38	.700	-.06
또래관계기술	→	플로리싱	.47**	.09	5.49	.001	.70
자존감안정성	→	플로리싱	.25*	.04	5.64	.001	.24
가족응집성	→	또래관계기술	.86*	.10	8.80	.001	.62
자존감안정성	→	또래관계기술	.20*	.07	2.72	.007	.15
가족응집성	→	자존감안정성	.24*	.05	4.66	.001	.23

* $p < .05$. ** $p < .01$.

다. Kline(2011)이 제시한 단계별 모델 간명화를 통한 모델수정 절차에 따라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며 부합도의 변화량이 최대로 기대되는 가족응집성과 플로리싱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그림 4와 같이 수정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초기 연구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족응집성 → 플로리싱 간의 경로 삭제를 통한 수정모델의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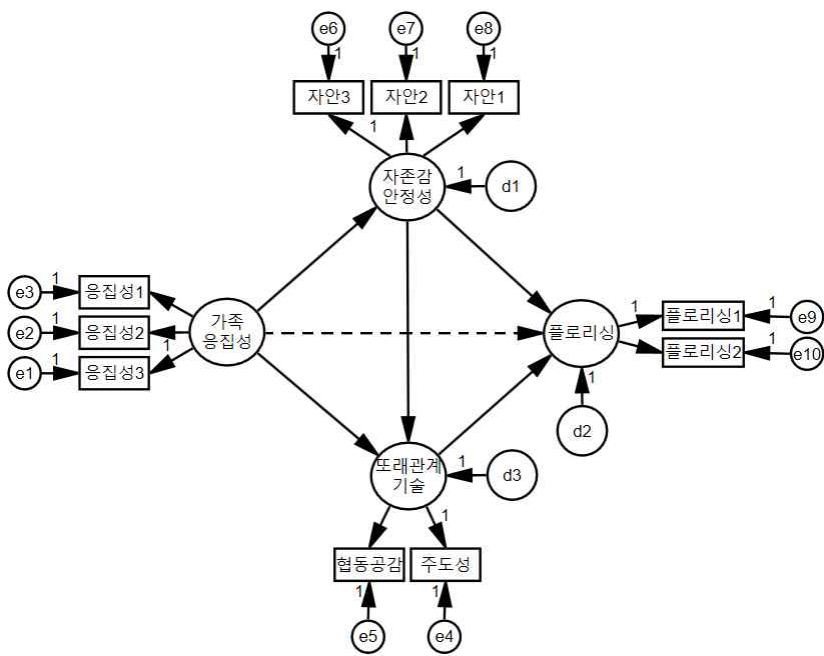


그림 4. 수정 연구모델

표 5. 초기모델과 수정모델 간의 부합도 차이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모델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모델비교		
								LO90	HI90	χ^2_{diff}	df	p
수정모델	25	30	99.96	3.44	.96	.98	.04	.05	.08	.16	1	.69
초기모델	26	29	99.80	3.44	.96	.98	.04	.05	.08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초기 연구모델과 수정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다음 두 모델 간의 부합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정 연구모델의 RMSEA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연구모델에서 가족응집성 → 플로리싱 간의 경로를 삭제한 수정 연구모델의 부합도 감소 정도

가 $\chi^2 = .16, p = .6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 하나를 삭제한 결과, 모델의 간명도는 $df = 1$ 만큼 높아졌지만 모델의 부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연구모델의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조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수정 연구모델의 구조회귀계수를 추정한 다음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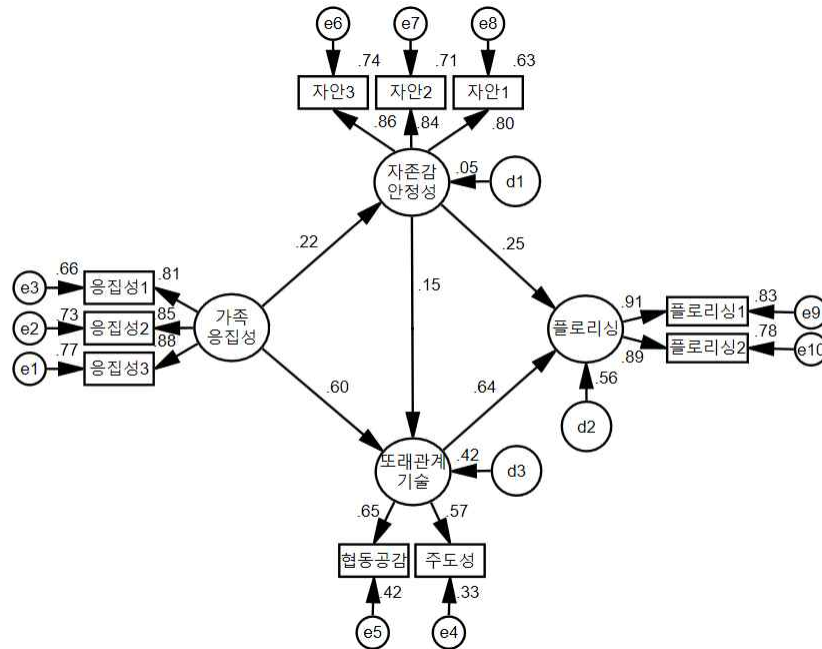


그림 5. 수정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표 6. 수정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화 계수(B)	S.E	C.R	p	표준화 계수(β)
또래관계기술 → 플로리싱	.44**	.05	8.91	.001	.64
자존감안정성 → 플로리싱	.25*	.04	5.93	.001	.25
가족응집성 → 또래관계기술	.85*	.09	9.00	.001	.60
자존감안정성 → 또래관계기술	.20*	.07	2.79	.006	.20
가족응집성 → 자존감안정성	.24*	.05	4.65	.001	.22

* $p < .05$. ** $p < .01$.

한 결과 그림 5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수정 연구모델의 적합도가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명성을 고려하여 수정 연구모델을 본 연구의 최종연구모델로 확정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정 연구

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첫째, 또래관계기술($B = .44$, $p = .001$), 자존감안정성($B = .25$, $p = .001$)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응집성($B = .85$, $p = .001$), 자존감안정성($B = .22$, $p = .006$)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응집성($B = .24, p = .001$)이 자존감안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AMOS 26.0에서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간접효과모형을 설정하고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표 7과 같이 가족응집성이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플로리싱에 간접효과($B = .20, p = .00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이 자존감안정성을 통해 플로리싱에 간접효과($B = .08, p = .002$)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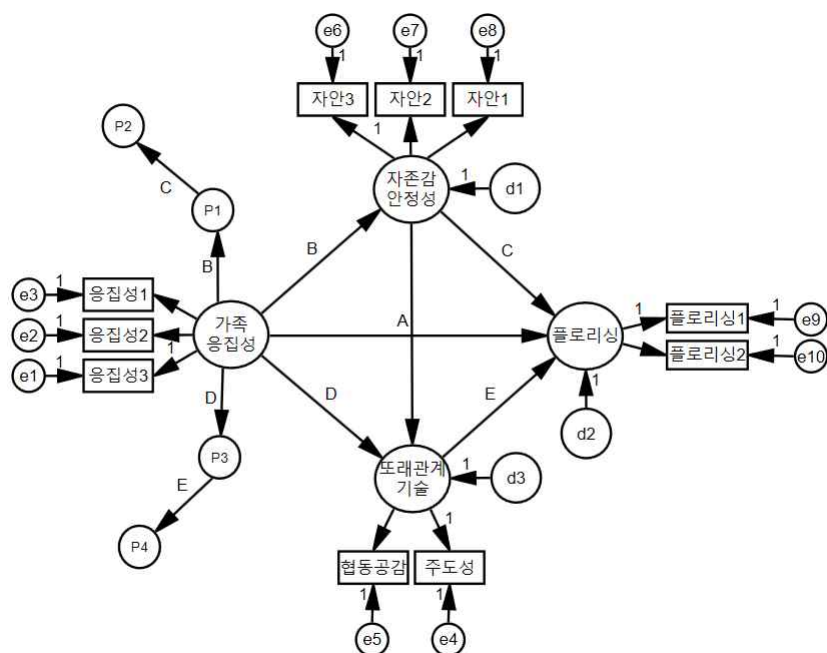


그림 6.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모델

표 7.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간접효과계수		
					<i>B</i>	<i>S.E</i>	<i>p</i>
가족응집성	→	또래관계기술	→	플로리싱	.20**	.12	.001
가족응집성	→	자존감안정성	→	플로리싱	.08*	.02	.002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과 청소년들의 플로리싱 간에 관계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플로리싱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한 후 원인변인으로는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을 선정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플로리싱,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그리고 자존감안정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와 플로리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과 플로리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자존감안정성, 그리고 플로리싱이 서로 간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의 가치관과 유대감, 또래관계가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연구(박현철 외, 2011),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또래관계, 정신건강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연구(장용희, 이재신, 2017)를 지지한다. 또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행복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연구(김민지, 고재홍, 2016), 또래관계가 플로리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연구(김미정, 문수백, 2020), 또래지지가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연구(이형순, 김은향, 2018)들과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의 자존감안정성이 삶의 만족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고현석 등, 2012; 박상현, 2019)을

지지한다. 정서적 유대가 높은 가족은 자녀를 보호하고 욕구를 충족해주면서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여 세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사회적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플로리싱에 가족응집성과 또래관계기술, 안정적인 자존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응집성은 청소년의 플로리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라는 발달적 시기가 반영된 결과로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띠는 가족응집성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며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발달적 시기(Gehring & Feldman, 1988)가 맞물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강현권, 2015), 부모 양육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강금주, 신현숙, 2015),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결과(주지영, 박성연, 2013)와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고등학생 시기는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이루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독립심과 자율성의 욕구가 이전 발달시기보다 높아지는 시기이다(Gehring & Feldman, 1988).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족응집성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은정, 여종일,

2018).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입시와 진로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지만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진로와 고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는 고등학생이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닐 수 있게 돕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웰빙인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전반적 상담에 있어 가족의 요인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관계기술은 플로리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들과의 관계 내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기술을 보이면서 서로 신뢰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니므로 또래관계가 플로리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관계가 플로리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미정, 문수백, 2020)를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정신적 웰빙을 예측하는 연구결과(윤정미, 김진영, 2017), 또래관계가 행복감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장영애, 이영자, 2015), 청소년기의 긍정적 또래관계가 안녕감 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성은모, 김근희, 2013) 등과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고등학생들은 학업과 입시, 진로 등 비슷한 상황에서 겪는 고민으로부터 심리적 불안과 혼란을 느끼지만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하는 등 서로 수평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 사회 기술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상호간에 제공해줄 수 있다(양윤란, 오경자, 2005). 즉

고등학생들의 또래관계기술은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발전된 관계를 가지는 시기이고 개인의 성장과 적응적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경험은 행복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Peterson, 2010)고 볼 때, 또래관계가 활발해지고 발전적 변화를 이루는 고등학교 시기가 플로리싱을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인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가정과 학교차원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존감안정성은 플로리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안정성이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자기 내부의 정서적 변화에 의해 변화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자기가치가 플로리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자존감의 안정성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박상현, 2019)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존감안정성과 삶의 만족이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Altmann & Roth, 2018), 자존감안정성이 심리적 웰빙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Kernis & Paradise, 2002) 등과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고등학생들은 학업이나 입시로 인해 항상 평가적 상황에 노출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자존감안정성이 높은 경우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일상을 통해 안정적 자존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개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순

히 결과에 대한 성과가 아닌 그 과정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응집성은 또래관계기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고 높은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인 또래관계기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이 건강하고 정서적 유대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직접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미정, 하미경, 2020),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연구결과들(김소희, 오윤자, 2006; 장윤희, 이재신, 2017)과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 유대가 또래의 심리적 유대감을 예측하는 연구결과(Updegraff et al., 2001)를 일부 지지한다.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지지적·애정적 태도를 보일수록 타인에 대한 고려나 보살핌, 관대함을 높여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을 배우기도 한다(Kerns, Klepac, & Cole, 1996). 즉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개인의 문제보다 가족 내의 상호관련된 것으로 구성원들과 형성된 관계 속에서 수용되어야 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5). 가족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탐색적 과정과 자기이해도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또래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 기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가족응집성은 자존감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성원들과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지원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안정적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관계가 자기개념에 직접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송영명, 이현철, 2011),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개념에 직접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희영 등, 2015) 등과 일부 맥을 같이한다. 즉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서 서로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해주는 것을 통해 상호존중감을 가지면서 안정된 자기개념을 배울 수 있다(오은정, 여종일, 2018). 고등학생 시기는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가족구성원들과 친밀하고 높은 정서적 유대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을 존중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자율성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자존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자존감안정성은 또래관계기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을수록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기술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안정성이 교우관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김명수, 조옥귀, 2010; 박미향, 김완일, 2014), 자존감안정성이 사회적 관계를 예측하는 연구결과(Altmann & Roth, 2018) 등을 일부 지지한다. 청소년들이 안정된 자존감을 가지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행동과 사회적 지식을 또래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다(송영명, 이현철, 2011). 즉 안정적인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여러 상황에서 자기가치를 평가하지 않기에 대인관계에서도 안정되면서 긍정적

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에 평가적 요소를 지닌 자기존중감을 넘어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가족응집성은 자존감안정성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플로리싱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플로리싱을 경험하고 증진하기 위한 초석은 가족응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는 보다 높은 독립심과 자율성이 요구되면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경험이 안정적인 자기가치를 지니게 도우며, 구성원들과의 양질의 관계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만족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강금주, 신현숙, 2015), 사회적 지지로서 가족지지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기격려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정경미, 김동원, 2019)를 일부 지지한다. 가족응집성과 자존감안정성은 관계적 환경에서 오는 친밀한 경험을 통해 자기에 대한 안정적 자존감을 지닐 수 있으며, 또래관계기술은 또래와의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선보이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웰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그들의 삶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응집성은 또래관계기술과 자존감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플로리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소년의 또래관계기술과 자존감안정성이 가족응집성과

플로리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의미한다.

플로리싱은 단순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특성과 행동,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김미정, 문수백, 2020). 지속가능한 웰빙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플로리싱은 좋은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성취를 통해 유능함을 알면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하여 한 인간으로 인격을 갖추고 건강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즉 플로리싱은 인간의 행복을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Shannon & Kathryn, 2018). 성인기의 삶을 예측해주는 행복경험은 청소년의 인격적 성장과 적응적 발달을 도우며 생활에서 의미있는 타인인 가족과 또래로부터 서로 기여할 수 있다(Diener & Oishi, 2005; Diener & Seligman, 2002). 유의미한 타인인 가족과 또래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고 개별적 특성에 맞도록 균형적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플로리싱은 예방이다(Seligman, 2011). 청소년들이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성인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경험인 플로리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와 제언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플로리싱에 대한 직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환경 변인으로는 가족응집성, 또래관계기술, 개인변인으로는 자존감안정성을 선정하였으나 연구된 변인들만으로 고등학생들의 플로리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플로

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심층적, 인과적 모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플로리싱 향상을 위해 교과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한다. 플로리싱은 궁정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정신건강에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정신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자기실현에도 도울 수 있다(추병완, 2019; Seligman, 2011). 고등학생의 플로리싱 증진을 위해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현교육적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 간 직접적인 효과에 관심을 두었으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플로리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의 성별, 가족구성원, 지역 등 개인과 환경 간의 차이인지 발달적 시기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플로리싱과 관련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 검정을 통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자존감안정성이 플로리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 수준에 따라 자존감안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존감 수준에 따른 자존감안정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로리싱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된 각각의 문항을 지표변수로 두기보다는 통계상 모수치 증가를 고려해 새로운 지표변수를 구성하여 문항꾸러미화 한 후 검증하였기에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닌 플

로리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플로리싱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문항을 지표변수로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플로리싱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웰빙을 경제적·교육적 수준 등으로 인한 단순한 차원의 삶의 만족감이 아닌, 대인관계, 성취감, 상호존중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기여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구조물적 웰빙요소로 측정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웰빙 연구는 단순히 기분 좋음으로 그 자체가 좋아서 선택한 것으로 진정한 행복이론 관점에서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연구에서도 단순히 개인의 삶보다는 생태학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 개인 웰빙의 관점이 포함된 것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플로리싱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미래의 성취에 앞서 현재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족과 또래, 개인이 지는 특성을 다각적으로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금주, 신현숙 (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대인관계만족의 중매매개효과. *아동교육*, 24(4), 105-122.

- 강현권 (2015).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자아실현 욕구가 학업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43(4), 7-30.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338-505.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19). 제 15차 청소년건강형태조사 통계 정보 보고서. 청주: 질병관리청.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 36(1), 151-158.
- 김명수, 조옥귀 (2010).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존중감의 안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20, 51-70.
- 김미정, 문수백 (2020). 청소년의 플로리싱과 가족적응성, 또래관계, 자기수용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2), 1-14.
- 김미정, 하미경 (202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학회지*, 1(1), 21-37.
- 김민지, 고재홍 (2016).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행복: 청소년의 긍정태도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1), 83-94.
- 김소희, 오윤자 (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4), 313-327.
- 김지영 (2016).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859-859.
- 김희영, 양미경, 박수란 (2015).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1), 407-440.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미향, 김완일 (2014).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475-501.
- 박상현 (2019).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초 4에서 고 1. *청소년시설환경*, 17(4), 145-151.
- 박승민, 강민철, 김은하 (2015).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중고등학생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63-84.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이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4), 87-115.
- 박현철, 김성봉, 홍달아기 (2011).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67-193.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91-112.

- 송희원, 최성열 (2012). 빈곤여부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6(3), 651-672.
- 신 미, 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대학생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6), 2451-2470.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4(4), 961-971.
- 염유식, 김경미, 성기호, 윤성탁 (2019).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은정, 여종일 (2018).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177-199.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언주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정미, 김진영 (2017). 청소년의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에 따른 행복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서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4(10), 173-196.
- 이정화, 이정자 (2015). 가족건강성이 청소년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9(3), 111-123.
- 이형순, 김은향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친구, 부모, 교사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8(7), 897-916.
- 장영애, 이영자 (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147-156.
- 장용희, 이재신 (201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471-488.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133-153.
- 정경미, 김동원 (2019).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1), 73-91.
- 정성미, 이지연 (2014).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인지왜곡의 매개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1), 5-18.
- 주지영, 박성연 (2013).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21-38.

- 추병완 (2019). 긍정교육의 성공 요인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64, 61-8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제26회 청소년 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ltmann, T., & Roth, M. (2018). The self-esteem stability scale (SESS) for cross-sectional direct assessment of self-esteem stability. *Frontiers in Psychology*, 9(1), 1-9.
- Bellis, M. A., Hughes, K., Jones A., Perkins, C., & McHale, P. (2013). Childhood happiness and violence: A retrospective study of their impacts on adult well-being. *British Medical Journal Open*, 3(9), 1-10.
- Brown, S. L., Nesse, R. M., Vinokur, A. D., & Smith, D. M. (2003). Providing social support may be more beneficial than receiving it: Resul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mortality. *Psychological Science*, 14(4), 320-327.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prara, G. V., Steca, P., Gerbino, M., Paciello, M., & Vecchio, G. (2006). Looking for adolescents' well-being: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pidemiologia E Psichiatria Sociale*, 15(1), 30-43.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 Oishi, S. (2005). The nonobvious social psychology of happiness. *Psychological Inquiry*, 16(4), 162-167.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W., Oishi, S., &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 Eagle, J. (2008). Families that work. In S. J. Lopez (Ed.),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Vol. 4. *Pursuing human flourishing* (pp. 111-130). Los Angeles: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 Erez, A., & Isen, A. M. (2002).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components of expectancy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6), 1055-1067.
- Fredrickson, B. L. (2015). 내안의 긍정을 춤추게 하라. 우문식(역).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원본 발간일, 2009)
- Furlong, M. J., Gilman, R., & Huebner, E. S. (2014). *Educational psychology handbook serie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2nd ed.). New York: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Gehring, T. M., & Feldman, S. S. (1988). Adolescents perception of family cohesion and power: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family system tes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33-52.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5). Family

- therapy. In R. J. Co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pp. 80-87). Itasca, IL: Peacock.
- Greener, I. (2002). Agency, social theory and social policy. *Critical Social Policy* 22(4), 688-706.
- Greenier, K. D.,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Not all high (or low) self-esteem people are the same: Theory and research on stability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Plenum series in social/clinical psychology.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51-71). New York: Plenum Press.
- Harter, S., & Monsour, A. (1992). Development analysis of conflict caused by opposing attributes in the adolescent self-portrait.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51-260.
- Hartup, W. W. (1993).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nis, M. H., & Paradise, A. W. (2002). Distinguishing between secure and fragile forms of high self-esteem.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9-360).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ernis, M. H., Paradise, A. W., Whitaker, D. J., Wheatman, S. R., & Goldman, B. N. (2000). Master of one's psychological domain? Not likely if one's self-esteem is unstab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97-1305.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ichalec, B., Keyes, C. L. M., & Nalkur, S. (2009). Flourishing. In S. J. Lopez (Ed.), *The encyclopedia of positive psychology* (pp. 391-394). Chichester, England: Wiley-Blackwell.
- Olson, D. H. (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 III. *Family Process*, 30(1), 74-79.
- Peterson, C. (2010). 크리스토퍼 피터슨의 긍정심리학 프라이어. 문용린, 김인자, 백수현 (역). 서울: 물푸레. (원본 발간일, 2007)
- Raykov, T. (2001). Estimation of congeneric scale reliability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ith nonlinear constraint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4(2), 315-325.
- Roberts, M. C., Brown, K. J., Johnson, R. J., & Reinke, J. (2005).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63-67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 (200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 Behavior Therapy*, 25(1), 35-64.

- Seligman, M. E. P. (2011). 마틴 셀리그만의 플로리시. 우문식, 윤상운(역). 서울: 물푸레. (원본 발간일, 2011)
 - Seligman, M. E. P., & Darling, R. B. (2007). *Ordinary families, special children: A systems approach to childhood disability*. New York: Guilford Press.
 - Shannon, M. P., & Kathryn, B. (2018). 긍정심리학의 강점특권. 우문식, 이미정(역).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원본 발간일, 2015)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Updegraff, K. A., McHale, S. M., Crouter, A. C., & Kupanoff, K. (2001). Parent's involvement i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655-668.
 - Zeigler-Hill, V., Christopher, J. H., Brian, E., Ashton, C. S., Besser, A., Haijiang, L., & Qinglin, Z. (2015). Self-esteem instability and personality: The connections between feelings of self-worth and the big five dimensions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2), 183-198.
- 1 차원고접수 : 2021. 01.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2. 25.
최종게재결정 : 2021. 03. 25.

The Flourishing of High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A Structural Analysis

Kim, Mi-Jeong

Kim, Jung-min

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related to the flourish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50 1st, 2nd, and 3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egion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subjects for the study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the flourishing high school students, and family cohesiveness, peer relationship skil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SPSS 26.0 and AMOS 26.0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model fit.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R, RMSEA and the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cohesivenes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flourishing of high school students; whereas, peer relationship skill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were found to affect the flourishing high school students. Second, family cohesiveness,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were found to affect peer relationship skill directly. Third, family cohesiveness was found to affect the stability of self-esteem 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and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meaningfully, which shows that family cohesiveness, peer relationship skill,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lourishing of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flourishing, family cohesiveness, self-esteem of stability, peer relationship